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은미, 고하정, 김기택(배숙자), 김미경, 김병율(이영숙), 김종진(한안나), 김준구, 김창길,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박금엽, 박순웅(이승애), 박혜진, 방석태(차옥자), 성미영, 송부현(김영진), 오영순, 유현호(이영미), 유호근(손영화), 윤병호(양영욱), 윤영준(박진숙), 이선미, 이한철(박희영), 이형욱, 전병구(이인숙), 최기훈(정계숙).(총28명)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래, 김병율(이영숙), 김영진, 박희영, 방석태, 방원식(이난수), 송다해, 오영순, 윤조훈(이인숙), 이선미, 이인숙, 이한철, 이형욱, 전병구, 최기훈(정계숙), 최봉순, 현응건(이윤욱).(총17명)

☞ **감사헌금**

이필래, 김병율(이영숙), 김용한(김현영), 김정연B, 김창길, 김철완(김유륜), 김현구(서재희), 김현욱, 김형래, 박금엽, 박부웅(최귀남), 박종삼(이영원), 이선미, 이향교, 임서영, 전병구(이인숙), 정기성(심순옥), 채만기, 채명엽, 최선미, 황영욱, 김구찬(최효자), 권사회, 에스더여전도회.(총24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래,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유준,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김혜란, 민옥희, 박순자, 박은숙, 박정숙, 박혜진,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양영욱, 양필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설아, 이승애, 이옥남, 이인숙, 정승현, 정욱순,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홍은민, 홍준민, 황영욱, 무명.(총43명)

☞ **월정헌금**

김원재.(총1명)

###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2주: 스가랴 13장 1절 - 느헤미야 3장 14절			
<b>주 일</b>	스가랴 13장 1 - 9절		
<b>월요일</b>	스가랴 14장 1 - 11절	<b>목요일</b>	느헤미야 2장 1 - 10절
<b>화요일</b>	스가랴 14장 12 - 21절	<b>금요일</b>	느헤미야 2장 11 - 20절
<b>수요일</b>	느헤미야 1장 1 - 11절	<b>토요일</b>	느헤미야 3장 1 - 14절

<b>원로장로</b>	이태일			
<b>시무장로</b>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윤병호 감영성 김병율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b>은퇴장로</b>	오만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b>교역자</b>	<b>부목사</b>	윤희진 김성중		
	<b>전도사</b>	이필래		
<b>찬양대</b>	<b>교육전도사</b>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b>지휘자</b>	<b>할렐루야</b> : 김한나 시은·에덴: 최원지	<b>호산나</b> : 김안나 켈: 이난수	
		<b>오르간</b>	심혜윤	
		<b>피아노</b>	김민지 김미희 유광희 주혜정 정혜지 공희라	
		<b>클라리넷</b>	박진숙 이난수	
	<b>플룻</b>	김민지		
	<b>솔리스트</b>	김안나 박예은 조상현 고광훈		
<b>선교사</b>	<b>파송선교사</b>	<b>태국</b> : 김정숙	<b>이집트</b> : 김신숙	
		<b>수리남</b> : 안석렬 이성욱	<b>A X국</b> : 김해월	
		<b>미국</b> : 김다니엘	<b>A X국</b> : 이분옥	
		<b>미국</b> : 최옥희	<b>A X국</b> : 박동권 김명화	
	<b>협력선교사</b>	<b>태국</b> : 박영성 정세미	<b>태국</b> : 박경환 이순연	
		<b>멕시코</b> : 김흥기	<b>A M A</b> : 조동진	
<b>협력교회</b>	제주 대광장교회			
<b>협력단체</b>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6. 5. 22 주일 예배 설교

##### 위기를 이겨내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14장 28-33절

설교: 이진우 목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수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원하지 않는 괴로움의 풍랑을 만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사력을 다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합니다. 그러나 거스리는 바람과 그로 인한 파도로 인하여 배는 파선 직전에 처하고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거스린다.”라는 뜻은 “반대하다, 적대시하다, 거스린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반대하는 자들과, 적대시하는 자들, 혹은 수많은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물질이든, 환경도, 우리가 행하는 일 등 거스리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 당황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힘과 물질을 의지하여 인생의 풍랑을 이기려 합니다. 견디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장관 피할 수 있으나 결국 그 큰 풍랑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 위기를 만난 이유

큰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마친 후 새벽에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를 보고 유령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의심 반 기쁨 반이었던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하여 주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불신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오라”명하셨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 내려 걸어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람은 휘몰아쳤고, 풍랑은 산더미처럼 올라옵니다. 귀에는 바람소리, 눈에는 성난 파도를 들고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30절“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 했는데 원문은 “블레폰 데 톤 아네온 이스츰쿠큰 예츰포베데”입니다. 이 뜻은 “그러나 그 거센 바람을 볼 때에 그가 무서워했다.”라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다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이 생기고, 낙망하며 실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 물에 빠져 들어 가며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파도를 보는 순간 불신이 찾아오고, 나의 약함을 보며, 이것이 결국은 두려움으로 변하여 실패하고 넘어지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2. 위기의 극복

위기에 처한 베드로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30절) 예수님은 이 외침을 거절하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셨고, 함께 다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소리 지르는 것은 위기를 만난 자신을 주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 “소리 질러”라는 헬라어는 “에크락션”으로 “크라조”의 파생형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 이렇듯 부르짖음을 통하여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됨을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 외쳤습니다. 여기 구원하소서는 “퀴리에 소손 메”로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됩니다. “구원”이라는 헬라어 “소손”은 자연적인 위험이나 어려움에서 구출되고, 삶의 문제에서는 해결함을 받으며,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보전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외침은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나타난 큰 문제나 환난 때문에 처음 믿음, 첫 사랑은 사라지고 불신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욱 고난이 심하고 괴로움이 임할 때 우리는“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요 문제 해결의 길임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즉시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3. 위기를 극복한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은 물속에 빠지드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이 때 베드로는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고, 위기를 극복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오직 주님과 더욱 가까이 향으로 위기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2 - 22

2016. 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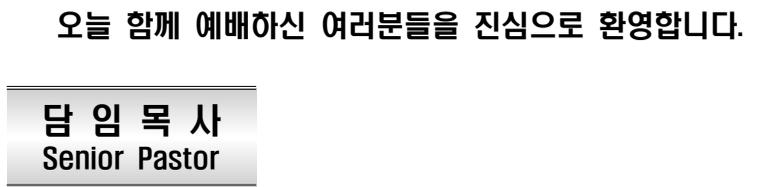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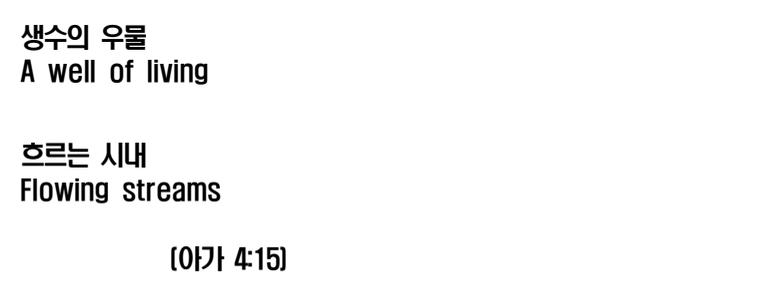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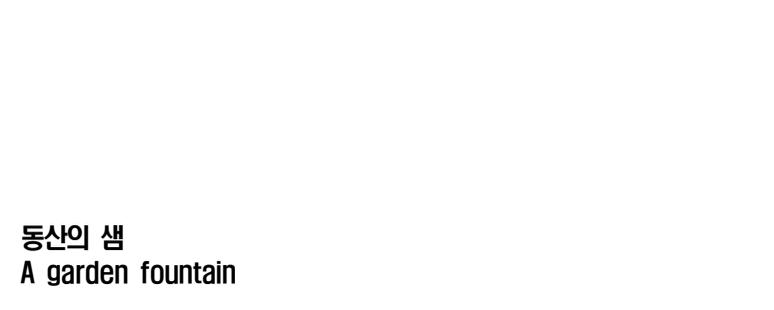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은혜위에 은혜리라” [요한복음 1장 1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